

# V리그 별들과 전국 배구 팬들 광주서 함께 즐겼다

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전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려  
2850명 관중석 가득 채워  
승패 떠나 축제의 한마당



V리그 스타들과 전국 배구 팬들이 광주에서 한 마음이 됐다. 한국배구연맹(KOVO) 한국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전이

2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렸다. 이번 시즌 올스타전은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리는 뜻에서 광주 페퍼스타디움을 무대로 삼았다. 관중 2850명이 페퍼스타디움을 가득 채웠다.

코로나19 여파로 2018-2019시즌 이후 3년만에 열린 올스타전, 이날은 선수들은 물론 팬들에게도 오랜 감동을 풀어주는 축제의 장이 됐다.

◇축제로 선수와 팬 '일심동체'  
경기에 앞서 팬들을 위한 '소원을 말해봐' 이벤트가 진행됐다. 임동혁(대한항공)과 임성진(한국전력), 김희진(IBK기업은행), 박정아(한국도로공사)가 출연해 팬들의 소원을 들어줬다.

김희진과 박정아는 사투리 및 반말로 서로 새해 덕담을 나눴고, 임동혁은 애교 3중 보여주기, 임성진은 이은음로 광고 따라하기를 선보였다. 이들은 현장에서 추가로 소원을 받아 '제로투', '넥스트 레벨', '롤링' 등 춤을 추며 팬들의 마음을 녹였다.

2021 Mnet 스트릿 우먼 파이터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한 댄스 퍼포먼스 그룹 '홀리뱅'의 공연도 이어졌다.

또 지난 22일 광주 송정초등학교에서 진행된 올스타 선수들의 깜짝 이벤트도 영상으로 돌아왔다. 선수들은 송정초의 노후된 물품 보관실을 페인트칠하고 새로운 락커와 냉장고를 선물했으며, 올스타전 초대권과 친필 사인 굿즈 등이 담긴 선물 패키지를 전달했다.

깜짝 손님 김연경도 광주를 찾았다. 김연경을 비롯한 2020 도쿄올림픽 대표팀은 '코트 위의 여왕' 유경화, '날으는 작은 새' 조혜정 등 1976 몬트리올 올림픽 여자배구 대표팀을 만나 유니폼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몬트리올 올림픽 대표팀은 대한민국 구기 종목 사상 첫 동메달을 획득했던 팀이다.

또 걸그룹 '이달의 소녀'의 추도 특별 출연해 선수들과 경기를 함께하기도 했다. 추는 서브에이스를 성공하며 관중의 환호를 받았다.

◇'최애' 선수들의 활약, 보는 맛 '톡톡'  
올스타전 팬 투표 최다 득표자를 위한 시상식은 9만 9502표로 올스타전에 10번째 출전한 신영석(한국전력)과 11만 3448표로 역대 최다 득표를 기록한 김희진이 등장했다. 신영석은 '얼굴로 배구하지 말자는 게 좌우명'이라며 관중석을 웃음바다에 빠뜨렸으며, 여자부 최다 득표를 얻은 김희진도 '처음으로 올스타전에 출전하고 역대 최다 득표도



김연경(왼쪽에서 아홉 번째)과 한국프로배구 V리그 올스타 선수들이 23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V리그 올스타전에서 1976 몬트리올 올림픽 선수단에게 유니폼과 꽃다발을 전달한 뒤 프로배구 발전을 기약하고 있다. /최한배 기자choi@kwangju.co.kr

해 좋다'며 팬들에게 '하트 3중 세트'와 함께 감사의 편지를 전했다.

올스타전 대표 이벤트 '스파이크 서브 킹&퀸 콘테스트'도 인기가 뜨거웠다. 1대 1 토너먼트 방식으로 가장 빠른 스파이크 서브를 구사한 선수를 가리는 이벤트다.

이소영(KGC인삼공사)은 91km/h 강속구로 스파이크 서브 칸 자리에 올랐다. 신인 정윤주(흥국생명)는 강력한 우승후보였던 '장충동 폭격기' 모마(GS칼텍스)의 95km/h 서브를 98km/h 서브로 뒤집으면서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한비는 김희진을 누르고 4강전에 올랐으나, 정윤주에게 패했다.

스파이크 서브 킹은 조재성(OK금융그룹)이 차지했다. 조재성은 121km/h 불꽃 서브를 꽂아넣어 임성진의 114km/h 서브를 가볍게 눌렀다.

◇승패 떠나...함께 즐기는 한마당  
경기는 K스타 팀과 V스타 팀의 대결로 세트당 15점씩 3세트로 진행됐으며, 1세트는 여자부, 2세트 혼성, 3세트 남자부 순서로 이뤄졌다. 올스타로 선정된 A페퍼스타 엘리자벳과 이현은 V스타 팀으로 함께 출전했다.

K스타 팀이 2-1(15-14, 10-15, 15-12)로 세트스코어를 많이 가져갔으나, 우승은 총 득점 수가 더 높은 V스타 팀의 차지가 됐다. 하지만 팬들은 승패를 떠나 선수들과 함께하는 광주에서의 순간을 즐겼다.



V리그 올스타전에서 K스타 팀 선수들이 득점 후 춤을 추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최한배 기자choi@kwangju.co.kr

경기에서도 선수들은 득점 직후 준비해 온 댄스와 퍼포먼스 등 각종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숨겨왔던 끼를 마음껏 드러냈다.

엘리자벳이 티아라를 쓰고 요술봉을 흔들며 귀여움을 뽐내면, 케이타(KB손해보험)는 '저질댄스'를 추며 관중의 웃음을 자아냈다.

정지훈(현대건설)은 스냅백 모자를 쓰고 '깡' 댄스를 선보였고, 이다현(현대건설)은 강성형 감독을 코트로 불러 한바탕 춤판을 벌였다. 조재영(대한항공)은 별명인 '조지용'과 겹맞게 장난감 칼로 분장하고 서브를 넣고, 러셀(삼성화재)은 문성민(현대캐피탈)과 마주보며 '푸쉬업 대결' 한판을 벌였다.

임성진이 불에 얼굴을 맞고 쓰러지자, 토미 코치가 놀라듯 '얼굴 터치' 비디오 판독을 요청해 폭소가 터져나왔다. 또 V스타 팀 대신 심판진이 코트를 채워 현역 프로 선수들과 맞대결을 펼치기도 했다.

우승팀인 V스타팀을 대표해 케이타와 엘리자벳이 시상대에 섰다. 세리머니상은 넘치는 끼로 시선을 모은 케이타와 매 득점 순간 아낌없이 춤 실력을 뽐낸 이다현에게 주어졌으며, 오늘의 플레이(Play of the day) 상은 김해란에게 전해졌다. 남녀 MVP는 각각 임성진과 이소영이 차지했다.

한편 이날 도드람양돈농협은 경기 시작 전 소외 계층을 위한 기부금을 광주시에 전달했으며, 한국배구연맹은 지난 시즌 우승팀인 대한항공과 GS칼텍스의 후원을 받아 초·중등 학생 베스트6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유연재 기자 yijyou@kwangju.co.kr

## 이범호 코치 "선수들에 싸우는 법 가르치겠다"

KIA 1군 타격 코치로 새 시즌

1군에 합류한 KIA 타이거즈 이범호 코치가 '가을 잔치'를 위해 '싸우는 법'을 가르친다. KIA는 올 시즌 김중국 감독으로 새로운 체제를 구성했다. 코치진에도 변화가 있다. 지난 시즌 퓨처스 총괄코치를 맡았던 이범호 코치가 1군 타격 코치로 2022시즌을 맞는다.

"결과"를 목표로 뛰게 된 이범호 코치는 "재미있을 것 같다. 좋은 선수들이 많다. 선수들이 모든 걸 보여줘야 한다. 현역 생활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처했던 투수들이 많다. 어떻게 치면 확률이 높아지는지 등 이야기해줄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멘탈적인 부분에서 경기 풀이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해주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싸우는 법"에 집중하겠다는 게 이 코치의 생각이다.

그는 "타격폼 바뀐다고 해서 짧은 시간에 성적이 뛰어나게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생각을 바꾸면 갑자기 좋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선수들이 가진 생각을 더 좋은 쪽으로 변화시키면 성적이 더 좋아질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성장과 변화가 필요한 선수들이 이 코치의 집중 지도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범호 코치

이 코치는 "나성범, 최형우, 김선빈 등 4-5명은 변화가 필요 없는 선수들이다. 포수들과 박찬호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크다. 그 선수들과 이야기 많이 나누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파악하는 게 먼저가 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범호는 "(박찬호가) 전화해서 번호를 바꿔야겠다고 했다. 기본상으로도 바꿔보는 게 좋을 수 있다. 원하지 않은 번호를 받은 것일 수도 있는데 새 번호로 더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며 "유격수니까 수비-체력적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멘탈적으로 잡아가면서 더 발전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 맞는 능력은 있다. 능력은 있는 선수라 스윙이나 그런 것에 변화를 주기보다는 타이밍이나 볼카운트 유리하게 만들어가면 더 좋아질 확률이 높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슈퍼 루키" 김도영에 대해서도 이 코치는 "멘탈을 강조했다."

이 코치는 "타고났다. 치는 코스가 많다. 몸쪽은 몸쪽대로, 바깥쪽은 바깥쪽대로 치고, 가운데는 가운데대로 세게 칠 줄 안다. 타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좋다. 습득능력이 굉장히 빠르다. 공격적인 면에서는 걱정할 게 없다. 발이 빨라서 빗맞아도 내야 안타가 될 수 있고, 출루해서 도루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중요한 것은 수비 이런 부분이다. 수비에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성장 속도가 느려진다. 신인이 한 번 위축되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게 걱정되는 부분이다. 관중 많은 경기, 중요한 경기에서 멘탈만 흔들림이 없으면 좋은 선수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대표 3루수였던 이 코치. 아쉽게도 그의 은퇴 후 KIA는 아직 확실한 3루수를 찾지 못했다. 이 코치가 우선 짚는 3루수 조건은 '송구'다.

이 코치는 "3루수는 공을 잘 던지는 게 첫 번째다. 앞에서 수비하고 강습타구가 많아서 공을 막아야 한다. 잘 막아놓고 정확한 송구만 이뤄지면 큰 문제가 없는 포지션이다. 팀에 3루 괜찮게 하는 선수들은 많지만 400-500타석을 소화하는 선수가 없었다. 1년, 1년 체력을 기르고 경험하면 좋은 3루수가 만들어질 것이다"고 이야기했다.

이 코치는 "총괄코치를 하면서 이야기 많이 나누려고 했다. 선수들이 기본 좋게 타석에 들어가고, 시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구단에서 투자도 많이 하고, 감독님도 새로 부임하셨다. 우리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 여기 있을 팀이 아니다.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로 올라갈 힘이 있다. 최선을 다해서 팀이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 수비수 한희훈 영입



베테랑 수비수 한희훈(31·사진)이 2022시즌에도 광주FC 유니폼을 입고 승격에 도전한다. 광주가 최근 '두 시즌 간 광주에서 맹활약한 수비수 한희훈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승격을 향한 동행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프로 9년 차인 한희훈은 탄탄한 대인마크와 공중볼 장악, 안정적인 수비 실력이 강점인 중앙 수비수다. 노련한 경기 운영과 정확한 패스로 수비형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자원이자, 투지와 헌신적인 모습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2020시즌 광주와 인연을 맺은 한희훈은 첫해 9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팀의 위기 순간 그라운드 안팎에서 팀에 활력을 불어넣으면서 창단 첫 파이널A 진출에 역할을 했다.

2021시즌에는 18경기에 나와 1골을 기록하면서 팀 내 비중을 키웠다.

한희훈은 "지난 시즌 많은 응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등이라는 결과를 안겨주려 많이 속상했다. 보답을 해야 할 차례"라며 "동료들과 더 끈끈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묵묵히 뒤에서 지원하는 선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